

[부활, 우리의 소망 1] - 사순절을 보내면서

장선철 편집국장 / 1996

「사순절」을 맞아 우리는..

3월은 「사순절」로 그 문을 연다. 3월 첫째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됨은 봄을 맞으며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이 아닐까?

이 3월에 우리는 따사로운 햇살과 연두색 고운 빛깔의 물이 오르는 버들과 샨포시 얼굴을 내미는 노란 개나리 꽃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한다. 그런데 봄 햇살이 진정 따사로울 수 있는 것은, 봉오리를 터뜨리는 꽃의 모습에서 진정 생명의 고귀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3월에, 「사순절」을 맞아 그 공로를 믿으면서 몸과 마음을 바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결단이 새로워지기 때문이리라.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슬한 이적과 기적을 좇아다니며 오직 빵과 명예와 안전을 구했던 수많은 군중들과 빌라도의 사형 선고에 따라 가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셨다. 전날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공회에 끌려가 온갖 곤욕과 고문을 당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흉포를 입히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만든 홀과 채찍과 냉소와 침과 쓸개 탄 신 포도주와 십자가의 형틀을 주었다.

3월을 맞아 만나는 「사순절」이란 절기 앞에 우리는 고백하여야 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자가 바로 나 임을. 교인이라 자칭하고 있으나 빵과 명예만을 좇았던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틀로 내몰은 주범이 됨을.

그리하여 그 십자가야말로 내 죄의 표식이라는 것을 이 3월에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 겸손히 서자. 그리고 우리의 눈을 십자가와 마주치자. 그 순간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잔잔히 와 닿는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만나자.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자. 그리하여 이 「사순절」 기간에는 십자가의 고통을 깊이깊이 새기며 참으로 낮아지는 훈련을 쌓자.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 돌아보아야 할 수 많은 곳을 찾아 나서자. 복음에 빛진 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자. 말씀을 깊이깊이 묵상하며 찬양하며 기도에 열심인 우리가 됨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의 향내를 풍기자. 가정에, 직장에, 국가에 진정한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찰스 스펀전이 남긴 유언을 우리 가슴에 새기자.

「이제 아는 신학이라는 것을 네 마디로 줄일 수 있다. 그것은 예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아멘.

「사순절」이란?

3월 들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다. 「사순절」이란 부활절 전에 금식하는 40일간의 절기를 말한다. 3세기 초까지는 정한 기간이 없이 2, 3일만 지키다가 니케아공의회 (325년) 때 기간이 정해졌다고 한다. 사순절에 행해지는 금식은 본래 세례 예비자들에 대하여 규정된 금식에서 유래되었다. 「40」이란 숫자는 모세와 엘리야, 특히 예수님의 40일간 금식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달랐다. 「재의 수요일」부터 40일을 사순절로 지킨 것은 그레고리우스 교황때로부터였다. 초기에는 이 절기를 매우 엄숙하게 지켜왔으나 점차 완화되어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이 기간을 금식기간으로 지키기보다는 구제와 경건훈련으로 보내는 경향이 있다.

* 출처- 온누리신문